

염상섭의 『삼대』와 바金的 『家』에 구현된 세대간 갈등양상 연구

전훈지*

Jun, Hoon-je. A comparative study of intergenerational conflicts between Yeom, sang-sup's Three Generations and Ba jin's The Family. This essay is a comparative research about Yeom, sangsup's Three Generations and Ba jin's The Family. Two works showed process of modernization about Korean and Chinese through each family. They illustrated the conflicts between traditional values on the basis of Confucian ideas and westernized, modern values. It could be read that the grand-fathers represent the old generations, the grandchildren are the new generations who against them, and the fathers are filled with anguish between two generations. This is a most common ground about two works. The other way, two countries had different political conditions. These conditions are reflected in two works. Therefore, the events and the peoples in two works are formed differently by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May forth movement made new generations argued for aggressive change, meanwhile, repressed Chosun society by the Japanese Empire has remarkable passive and shady resistance after 3.1 independence movement. 1930s Korea and China were caught in a maelstrom of sudden politic changes and at the same time, the values among generations were considerably different. The goal of this essay is to understand contemporary society and people's value by comparing these gap among generations.

Keyword: Three Generations, The family, modernization, the family novel, Yeom Sang-sup

1. 서론

중국과 한국은 비슷한 시기에 봉건적 질서에서 벗어나 근대화 과정을 겪었다. 한국의 경우,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인해 급속한 근대화를 진행하였다. 중국은 봉건 사회에 대한 비판과 그와 관련된 자의식이 응축되어 5.4 운동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일으키며 본격적인 근대 질서로 편입되기 시작하였다. 크게 놓고 보면,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흐름으로 근대화 과정을 겪은 것이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두 나라의 근대화는 사뭇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격변하는 근대화를 배경으로 한 한·중 두 나라의 장편 소설을 비교 고찰해보고자 한다. 1930 년대에 발표된 한국의 『삼대』와 중국의 『가』는 두 나라의 근대화 과정을 들여다 볼 수 있음과 동시에 신·구 세대 간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도 엿볼 수 있는 좋은 비교 대상이다.

염상섭은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작가이다. 그의 초기작 「표본실의 청개구리」와 「암야闇夜」, 「제야除夜」는 본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격적인 근대소설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다. 염상섭은 작가 특유의 냉철한 감각으로 당대 사회를 예리하게 묘사해내는 작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조선에서 3.1 운동이 일어난 것에 부응하여, 일본 유학 중에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투옥되기도 하였다. 《동아일보》의 기자로 발탁되어 기자 생활을 하면서 작가 생활도 겸한 염상섭은 이후, 지속적인 기자 생활과 문인 활동을 통해 탁월한 현실 감각을 보여주었다. 타계하기 직전인 1963 년까지 많은 장·단편과 평론을 발표하며 한국의 주요 작가로 자리매김하였다.

그의 대표작인 『삼대』는 1930 년대 초반, 한국의 식민지 사회를 배경으로 한 장편소설이다.¹ 식민지 중산층의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줌과 동시에, 사회주의 운동에 임하는 운동가들을 심정적·물질적으로 돕는 동정자 同情者 (심퍼다이즈 sympathizer)를 내세우면서 식민지 조선 사회의 문제적인 상황들을 형상화하였다. 염상섭의 『삼대』는 이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식민지 사회의 리얼리즘을 대표하는 문제작으로 평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 문제와 사회주의 문제 등 다양한 각도에서의 접근이 시도된 흥미로운 작품이다.

『삼대』는 ‘조의관-조상훈-조덕기’ 3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 작품에서 전통적 가치관과 개화된 기독교식 사고방식의 대립, 봉건적 가치관에 대한 반발과 순응을 보여준다. 손자인 덕기는 동경유학생이다. 마지막 학기를 앞둔 상황이었으나, 덕기는 할아버지의 병환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덕기의 할아버지인 조 의관은 아들인 조상훈을 신뢰하지 않는다. 조상훈은 봉제사를 거부하는 외부적으로는 명망 있는 교회의 장로이지만, 교인들과 마작과 음주를 즐기는 타락한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봉건적 가치관을 신봉하는 조 의관은 자신의 후계자로 조덕기를 지목하며, 금고와 사당 열쇠를 덕기에게 맡긴다. 조 의관의 사망 이후, 조 의관의 첩이었던 수원 집과 조상훈 등 덕기를 제외한 가족들은 조 의관이 남긴 유산에 혈안이 된다. 덕기는 그 사이에서 중립적 자세를 취하면서 할아버지의 유산을 고르게 분배하며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나간다. 이러한 덕기 가족의 이야기의 반대편에는 덕기 친구인 병화와 조상훈의 옛 애인인 홍경애 등이

¹ 《조선일보》에 1931년 1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연재된 『삼대』는 해방 이후인 1948년 을유 문화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이 글에서 기본 텍스트로 삼은 『삼대』는 『염상섭 전집 4: 삼대』(민음사, 1987)이다. 인용 시에는 면수만 표기한다.

엄혀 사회주의 지하 운동이 전개된다. 형사들의 눈을 미처 피하지 못해 덕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검거되었다 풀려나는 것이 『삼대』의 또 다른 이야기이다.

바진巴金은 중국 근·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다. 그는 『멸망滅亡』으로 본격적인 소설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그의 소설 『가家』는 『격류삼부곡激流三部曲』의 제 1편에 해당한다.² 『격류삼부곡』은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道에 거주하는 한 가족의 이야기이다. 3대에 얽힌 이들의 이야기는 바진 자신의 가족사를 토대로 그려낸 것으로 1930 년대의 5.4 운동과 그에 따른 청년들의 사상의 변화와 실천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은 5.4 운동을 비롯한 정치적 격변 속에 있는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道の 가오高씨 일가를 중심으로 봉건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의 대립을 신·구세대의 갈등과 반항을 통해 그려내고 있다. 가오씨 일가는 집안의 최고결정자인 가오 나리와 2 세대인 커밍克明, 커안克安, 커딩克定 3 형제와 3 세대인 쥬에신覺新, 쥬에민覺民, 쥬에후이覺慧이다. 이 중에서 중심 인물은 쥬에후이이다. 그는 집안 전체를 흐르는 유교적 분위기와 작음주의作揖主意에 숨막혀 한다.³ 그가 사랑했던 하녀 밍핑鳴鳳의 죽음, 형 쥬에신의 옛 애인이자 사촌인 메이梅의 죽음, 형수 우이쥬에瑞珏의 죽음 등 쥬에후이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가정 내부의 일은 쥬에후이를 격동하게 하였고, 그는 결국 상하이上海로 떠난다.

이상의 두 작품은 각기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가족사소설로서, 비슷한 시기를 배경으로 전개된다. 한국의 3.1 운동 이후의 과정과 중국의 5.4 운동이라는 정치적 변화와 신·구세대의 대립과 갈등 등이 가족 구성원을 중심으로 그려지고 있다. 두 작품 모두 3 세대를 걸쳐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데 1 세대는 유교적 가치관을 고수하는 권위적인 가부장들이며, 2 세대는 1 세대가 축적한 부를 개인의 향락에 사용하는 타락한 인물들이다. 3 세

² 바진의 『가』는 최근에 출판된 『가: 바진 장편소설』 1,2 권(박난영 역, 황소자리, 2006)을 기본 텍스트로 하였다. 인용 시에는 권수와 면수만 표기한다. (예: 1 권 132 면은 1:132 면)

³ 작음주의는 유반농劉半農의 「작음주의作揖主意」(『신청년新青年』 5 권 5 호, 1918.10)에서 유래된 말로, 작음이란 맞잡은 손을 얼굴 앞으로 들고 허리를 앞으로 공손히 구부렸다 펴면서 하는 인사를 가리킨다. 앞에서는 공손한 태도로 수공을 하지만 뒤에서는 내 생각대로 행동하여 직접적인 말썽을 피하는 행위와 그러한 주장을 일컫는다. 박난영, 『동양의 고전을 읽는다: 문학』, 휴머니스트, 강태권 편, 2006, 305 면; 김성옥, 「사회축도로서의 봉건대가정과 신세대의 삶의 대응양상」, 『한중인문학연구』 10, 2003, 174 면, 각주 23) 참고.

대는 기존의 봉건적 가치관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관을 추구하는 인물들이다. 이 3 세대 인물들은 적극적인 반항 아들이거나 절충적이거나 소극적인 인물들로 나뉘어진다.⁴

이러한 유사성을 근간으로 두 작품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볼 수 있다. 한국에서 이두작품에 대한 연구는 꽤 많이 제출되었다. 활발한 연구의 원동력은 한국 내의 중국 유학생의 수가 증가한 데에 있다. 이로 인해 한·중 비교문학에 관한 학위논문도 꾸준히 발표되었다. 두 작품에 대한 비교연구들 중에서 두 작품에 관한 연구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한국 문학 내의 영향력 있는 주요 학자의 연구로는 조동일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조동일은 한·중·일의 작품 중에서 3 대가 등장하는 가족 중심 소설 3 편과 프랑스 작품인 『티보가의 사람들(*Les Thibault*)』을 비교 분석하였다. 동아시아 3 국의 가부장 제도가 어떤 과정을 거치며 붕괴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이다. 조동일은 각 나라의 지배신분인 신사(중국), 귀족이 아닌 상층농민(일본), 돈으로 양반을 산 사이비 양반(한국)의 죽음의 과정을 비교하고, 지배 세력에 대한 자손의 태도를 온건파와 강경파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특이점은 바진의 경우에는 서구화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한 데 반해, 염상섭은 우파도 좌파도 아닌 제 3의 길을 찾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두 작품을 평가한다.⁵ 조동일과 유사한 견해를 보이지만 접근 방식에 큰 차이를 보인 연구는 김성옥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성옥은 두 작품의 가장 큰 차이는 각 작가의 전형화의 방식이 다른 데에 있다고 평가하였다.⁶ 이 두 논문을 시작으로 염상섭과 바진에 대한 비교 연구는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다. 그간 학위논문 단위로 발표된 비교 연구의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앞선 두 논문과 유사하게 가족(사)소설이라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⁷과 서술 방식에 따른 비교 연구⁸, 인물 연구⁹ 그리고 세대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춘 비교 연구¹⁰이다.

⁴ 김성, 「한중 가족소설에 대한 비교 연구」, 단국대 석사논문, 2014, 9면.

⁵ 조동일, 「동아시아 소설이 보여준 家父長(가부장)의 종말」, 『국제·지역연구』 10 권 2 호, 2001, 81~102면.

⁶ 김성옥, 「염상섭의 <三代>와 巴金의<家>에 대한 比較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0; 「사회축도로서의 봉건대가정과 신세대의 삶의 대응양상」, 『한중인문학연구』 10, 2003.

⁷ 장어현, 「한중 가족소설에 대한 비교 연구-염상섭의 『삼대』, 바진의 『가』를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논문, 2014;

⁸ 장예소, 「염상섭의 『삼대』와 파금의 『가』의 비교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2014.

⁹ 선우금, 「파금의 《격류삼부곡》과 염상섭의 《삼대》의 비교연구-여성의 혼인과 교육문제를 중심으로-」, 한양대 석사논문, 2003; 수혜국, 「염상섭

이상의 연구들은 세대간의 갈등 양상과 그에 따른 가부장의 몰락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두 작품을 통해 전근대적 질서의 붕괴가 각 나라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삼대』와 『가』는 신·구세대의 대립과 갈등과 여성들의 지위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선행연구를 근간으로 봉건 세대의 후퇴와 후속 세대의 등장 사이에 자리잡고 있는 근대화의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1 세대의 죽음이 곧 봉건적 질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맞지만 근대적 가치관을 수용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두 작품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는 가부장의 붕괴 또는 봉건 세대의 몰락에 집중했었다면 여기서는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는 한국과 중국 당대 사회의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에 이 글의 목적을 둔다.

2. 봉건적 가치관의 퇴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

이 장에서는 두 작품에서 나타나는 가치관의 충돌을 살펴본다. 봉건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은 작품에서 세대간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조부와 손자와의 대립과 그 결말은 봉건적 가치관의 종결과 새로운 시대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대립 사이에 끼여 선불리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2 세대들은 전체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그려진다. 신교육을 받았으며 근대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봉건적 가치관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으로는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 세대들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와 같은 세대간의 대립과 갈등은 크고 작은 사건들과 얽히며 소설을 구성한다. 각 작품을 통해 구체적인 모습을 찾아보며 갈등의 형상화 과정과 세대간의 대립에서 주로 문제되는 사안이 무엇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염상섭의 『삼대』는 덕기가 짐을 싸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마지막 학기를 앞둔 덕기는 동경으로 가기 위해 짐을 싸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학업을 마무리 하지 못한다. 1 세대인 조 의관은 가문의 지속과 영달을 위해 아들 조상훈 대신, 손자 조덕기에게 가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금고와 사당 열쇠

『삼대』와 파금 『가』의 대비연구, 충남대 석사논문, 2008; 김성, 「염상섭의 『삼대』와 빠진의 『가』 비교연구」, 단국대 석사논문, 2013.
¹⁰선보량, 「『삼대』와 『가』에 나타난 세대갈등 비교연구」, 아주대 석사논문, 2012.

를 맡기게 된다. 조 의관이 아들 조상훈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의 신식 가치관 때문이다. 3.1 운동 무렵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했던 그는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러나 십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상훈은 타락한 자식이며 무능한 아버지일 뿐이다.

자기 부친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남에 없는 위선자(僞善者)거나 악인은 아니다. 이 세상 사람을 저울에 달아 본다면 한 돈(一錢)도 못 되는 한푼 내외(一分内外)의 차이밖에 없건만 부친이 어떤 동기(動機)로이었던지-어떤 동기라느니보다도 이삼십 년 전 시대의 신청년이 봉건사회를 뒷받길로 차버리고 나서려고 허비적거릴 때에 누구나 그리하였던 것과 같이 그도 젊은 지사(志士)로 나섰던 것이요 또 그리느라면 정치적으로는 길이 막힌 그들이 모여드는 교단(敎壇) 아래 밀려가서 무릎을 꿇었던 것이 오늘날의 종교 생활에 첫 발길이었던 것이다. (36 면, 강조 및 밑줄은 인용자)

작가는 덕기의 생각을 통해서 조상훈을 “봉건시대(封建時代)에서 지금 시대(現時代)로 건너오는 외나무다리의 중턱에 선 것 같다” (36 면)고 지적한다. 이도 저도 아닌 조상훈은 아버지의 신임도 얻지 못하고, 아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체면도 지키지 못한다. 조 의관의 아들에 대한 멸시와 천대는 집안 식구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대다수의 가족들이 조상훈을 무시하는 상황에 이르게 한다. 집안의 대소사에 참여해도 조상훈의 존재는 미미할 뿐이며, 조 의관의 병환 중에 문안을 드리는 것도 번번이 거절당한다.

조상훈이 가족들에게 신임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제사를 거부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의 행실은 분명 비난 받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가족 몰래 흥경애와 살림을 차렸고, 아이도 낳았지만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유치원 교사인 김의경과 또 살림을 차릴 궁리를 하고 있다. 조 의관의 사망 이후에는 거짓 형사를 대동하여 금고를 열기도 한다. 일련의 행동들에서 조상훈이 과거 투철한 독립 지사였거나, 교회의 신실한 장로라는 사실들은 모두 지워진다. 집안의 부를 이용하여 향락과 타락을 일삼는 무능한 아들일 뿐이다. 이처럼 무능한 조상훈의 모습은 『가』의 2 세대 즉, 커밍, 커단, 커안 형제들에게서도 나타난다. 이들은 여배우의 꿈무늬를 쫓거나, 가족 몰래 기생과 살림을 차린다. 그리고 집안의 이름을 내세워 여기저기 빛을 지고 마작에만 몰두한다. 두 작품 모두 2 세대들에게는 비전이나 희망, 변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두 작품의 2 세대들이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들이 당면한 상황

에 기인한다. 그들은 봉건적 질서에서 근대로의 시대적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했지만, 완고한 아버지 세대에게 가로 막혀 좌절했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의 그들은 미래를 향해 전진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그럼에도 『삼대』의 조상훈은 아버지의 낡은 가치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대립한다. 조 의관은 친지들의 제안에 따라 ‘대동보소’를 사고, 묘지를 이장하고자 한다. 조상훈은 족보와 조상에 관심을 갖는 아버지의 봉건적 가치관을 비판하고, 돈에 혈안이 되어 조 의관을 충충거리리는 친지들을 경계한다. 덕기가 할아버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따르는 것과 비교했을 때 조상훈의 태도는 그 의도가 무엇이던 간에 구세대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다.

할아버지에게 순종적인 덕기의 모습은 『가』의 주에신의 모습과 일치한다. 『가』에서 3세대인 주에신은 장남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뜻을 따른다. 그가 꿈꾸었던 열정적인 삶과 행복한 미래는 봉건적 가치관의 일방적인 강요 속에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

그는 담담하게 가정의 짐을 자신의 젊은 두 어깨에 짊어졌다. (중략) 그는 오직 어깨에 지워진 짐을 위해서, 부친이 남기고 간 이 대가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살아갈 뿐이었다. (중략) 그는 자신의 희생이 결코 모두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1:71~73면)

주에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와 자신의 열정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회의에 빠져 동생들과 <신청년新靑年>, <신사조新思潮> 등의 잡지를 읽으며 열변을 토하기도 했지만, 결국 현실에 순응해간다. 매달 받는 월급과 가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수습하면서 자신의 꿈과 희망은 점점 소멸해가고 만 것이다. 이러한 주에신의 모습에서 2세대들의 좌절 과정을 유추해볼 수 있다. 개인의 이상과 현실이 충돌할 때, 가족과 가문을 책임져야 하는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드는 의문점은 가족들이 조 의관과 가오 나리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이유이다. 조 의관과 가오 나리의 말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그들의 명령은 빠른 시간 안에 실행해야만 하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그리고 대다수의 가족들에게 그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의견을 묻는다는 건 결코 할아버지의 본의가 아니었다. 할아버지는 명령을 내렸을 뿐이고 할아버지의 명령은 언제나 준수되어야 했다. (2:162면)

가오 나리 일가에서는 할아버지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정하는 혼처와 결혼하고 직장을 얻는 등 할아버지의 말이 곧 법이고 실행해야 할 규범이었다. 아들들인 2 세대들을 비롯해 3 세대 주에신 역시 할아버지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모습은 『삼대』의 조덕기에게서도 나타난다. 덕기는 할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하고 뜻하지 않은 할아버지의 명을 따른다. 그것은 주에신에게 부여된 것처럼 가정을 지키는 것이었다.

어쨌든 이 금고 열쇠를 맡아라. 어떤 놈이 무어라고 하든지 소용 없다. 이 열쇠 하나를 네게 맡기려고 그렇게 급히 부른 것이다. 이것만 맡겨 놓면 인제는 나도 마음 놓고 눈을 감겠다. 그러나 내가 죽기까지는 네 마음대로 한مان히 열어 보아서는 아니 된다. 금고 속에는 네 도장까지 있다마는 내가 눈을 감기 전에는 네 도장이라도 네 손으로 써서는 아니 된다. (중략) 그 열쇠 하나에 네 평생의 운명이 달렸고 이 집안 가운이 달렸다. 너는 그 열쇠를 붙들고 사당을 지켜야 한다. 네게 맡기고 가는 것은 사당과 그 열쇠-두 가지 뿐이다. (254-255 면, 밑줄 및 강조는 인용자)

할아버지의 명령에 덕기는 마지막 학기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결국 집안의 관리자로 주저앉게 된다. 할아버지가 남긴 재산에 눈독을 들이는 가족들로부터 금고와 사당 열쇠를 지키며 또 한편으로는 그 재산을 고르게 분배하면서 조덕기는 어린 가장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나간다. 주에신이 자신의 이상을 접고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과 조덕기가 학업을 중단한 채로 가장으로 자리잡는 과정은 근대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조차 여전히 봉건적 질서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그렇다면 1 세대인 『삼대』의 조 의관과 『가』의 가오 나리가 명령을 내리며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적으로 그들의 말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봉건적 가치관이 가정 내부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 말씀에 순종하라는 유교적 가치관을 근간으로 한 봉건적 질서가 크게 작용하면서 수직적인 가족 체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더 생각해보아야 할 부분은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각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1930 년대는 더 이상 봉건적 질서가 사회의 기틀을 잡기가 어려운 시점이었다. 자의든 타의든 근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경제력이었다. 따라서 1 세대가 가지고 있는 재력은 그것이 비록 봉건 사회에서 이룩한 산물일지라도 근대화된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으며, 그 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가정 내의 권위자의 말을 따라야만 했던 것이다.

이것은 조 의관과 가오 나리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데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그는(가오 나리-인용자) 지금처럼 실망과 고독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지금까지 그의 모든 희망은 망상이었던가? 이러한 의혹이 들기 시작했다. 그는 이 대가족과 가업을 이룩했고 독단적인 수완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지휘했으며 이 집안을 날로 융성시킬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졌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의 결과는 오늘과 같은 고독뿐이었다. 그는 최후의 안간힘으로 이 국면을 타개하려 했으나 그것도 불가능했다. 현실이 뚜렷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집안은 지금 내리막길을 걷는 중이었다. (중략) 이제 끝났다. 모든 게 끝장났다. 그는 여러해 동안 ‘4 대동거(四代同居)’의 꿈을 꾸어왔으나 그 꿈이 실현된 오늘날 그가 얻은 것은 공허함뿐이었다. 실망과 환멸과 암흑뿐이었다. (2:221~222 면)

죽음을 앞둔 가오 나리의 심정은 절망적이다. 자신의 권위를 통해 대가족을 이끌어 나가려고 했고 ‘독단적인 수완’을 발휘했지만 그 수완은 결국 봉건적 체제 내에서의 부부의 축적을 의미한다. 경제적 가치의 융성함은 자신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지만, 학교 교육을 받은 아들과 손자들은 자신을 배반하고 만다. 하지만 가오 나리도 뒤늦게나마 자신의 뒤를 이은 세대들이 지향해야 할 가치관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한다. 쥬에민에게 끝까지 공부할 것을 다짐시키면서 자신의 과오를 사과하는 가오 나리의 모습은 다분히 작가의 의도가 담긴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는 곧 3 세대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삼대』의 조 의관 역시나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돈에만 혈안이 난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공허함을 느낀다. 돈을 들여 족보를 사고 사당을 지었지만, 자신의 속내를 진정으로 이해해주기 보다는 자신이 쥐고 있는 금고 열쇠로 인해 가족들이 자신에게 순종적인 자세로 대하는 것임을 뒤늦게 깨닫는다.

두 작품에서 나타나는 봉건적 가치관은 권위적인 가부장을 중심으로 수직적 가족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었다.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의견 전달은 그 내용의 부당함과 상관없이 유지될 수 있었다. 3.1 운동 이후 급변하는 조선 사회의 분위기나 신문화 운동에 따른 반봉건·반외세의 분위기는 당연하게 여겨져 온 봉건적 기틀에 균열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사상과 문물을 접하며 근대화된 교육을 받은 세대들은 1 세대의 권위에 이의제기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아들과 손자들이 반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

부장에 대한 극렬한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가부장에 대한 반감과 대립은 가부장이 갖고 있는 경제력이, 가부장의 죽음과 함께 소멸되거나 다음 세대로 넘어갔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 세대의 죽음이 2·3 세대의 본격적인 활동 내지는 세대 교체의 전면화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당대 사회를 바라보는 작가들의 시선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가들이 갖고 있는 구세대에 대한 반감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가 절충되어 신·구 세대의 갈등과 대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 세대의 죽음과 3 세대의 사회로의 진입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이다.

3. 신세대의 저항과 사회적 분위기의 차이

이 장에서는 두 작품에서 나타난 구세대와 사회를 향한 신세대의 저항을 살펴본다. 여기서 두 작품은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삼대』의 경우는 3.1 운동의 실패와 식민지 지배라는 제한된 상황 때문에 저항의 양상이 겉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은밀하게 진행된다.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사회운동이 진행 중에 있으며, 형사들이 그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삼대』의 인물들은 서로에게도 비밀을 유지한 채로 저항 운동을 진행한다. 이러한 저항 운동에 맞춰진 서사의 초점으로 조 의관과 신세대간의 직접적인 대립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는 염상섭 특유의 방관적 관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염상섭의 이러한 창작 스타일은 중산층 특유의 보수주의로 명명되기도 한다.¹¹ 조 의관에게서 조덕기로 넘어온 집안의 권력과 조 의관 사망 이후 고른 유산 분배에 초점을 맞추면 중산층 보수주의가 일면 타당하지만 이는 작가의 가치관을 축소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중산층 보수주의라는 관점 보다는 당대 사회를 아울러 묘파하려고 한 작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KAPF의 해산과 민족해방운동의 어려움이 파행적인 근대화에 따른 식민지인들의 가치관의 혼란에 덧입혀졌을 때 당대 사회의 인물들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가』에서는 주에후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저항 운동이 진행된다. 이 작품의 특이점은 사회를 향한 적극적인 운동과 더불어 가정 내에서도 3

¹¹김윤식, 『염상섭 연구』, 서울대 출판부, 1987, 261~263 면.

세대인 주에민, 주에후이가 적극적인 반항을 시도한다는 점이다. 이들의 태도는 봉건적 가치관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가려는 젊은 세대의 몸부림을 대변함과 동시에 앞으로 중국 사회가 변화되기를 희망하는 작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¹²

『삼대』에서 덕기는 시종일관 할아버지 조 의관에게 순종적인 자세를 보여준다. 그런 덕기를 바라보는 덕기의 친구 병화는 순종적인 덕기의 자세를 비판한다. 병화는 목사인 아버지와 의 신앙에 대한 가치관의 대립으로 집을 나온 ‘마르크스 보이’이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 덕기의 지원으로 간신히 삶을 꾸려나가지만 병화는 덕기에게 항상 당당한 태도를 고수하며 덕기의 중립적 자세에 비난을 퍼붓는다.

자네가 아무리 나와 같은 시대에 숨을 쉬기로 자네야 미구에 할아버님이 그 유산과 함께 물려주실 시대의 꼬리를 붙들고 늘어붙어 앉을 거 아닌가? 금고를 맡아보게. 돈을 만져 보게. 지금 생각으로는 뺏어나아가는 시대의 큰 수레에 탈 것 같을 듯싶지마는 그 육중한 금고를 안고 탈 수야 없으니 시대의 꼬리나 붙들고 늘어질 수밖에 더 있겠다. (243 면)

한편, 병화는 덕기가 필순에게 어설픈 친절을 베푸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필순은 병화가 거처하는 하숙집 주인의 딸로 총명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무 공장의 직공으로 근무한다. 그런 필순에게 학비를 대주겠다는 덕기를 향해 병화는 예리한 질문을 던진다.

고무공장에 보내는 것도 아니 되었으나 그래도 자네 덕 같은 유산계급이나 중산계급의 가정에 며느리로 들여보내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네. 공장 안에서는 그래도 제 생활이 있으나 중산계급 가정에 들어가서는 「마네킹 꼴」이 되니까 말일세. (중략) 자네가 필순이를 공부부를 시키지 못해하는 본의는 어디 있나? (중략) 거기에도 푸터 뿌르조아의 유희적 기분이 섞이지 않았나 하는 의심도 없지 않으나 (중략) 결국에 자네 같은 사람의 하염직한 동정인지 취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고사하고, 지금의 그 알뜰한 교육은 시키면 무얼 하나. (142 면)

병화의 이러한 지적은 덕기로 하여금 조상훈과 홍경애의 관계를 반면교사反面教師 삼게 만든다. 조상훈은 선의를 가지고 홍경애의 교육과 취업을

¹² 작품의 ‘역자 후기’에 있는 바진과의 문답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바진은 “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신념은 그 작품을 쓸 당시 나의 신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략) 나는 줄곧 광명이 암흑을 이겨내리라는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말하며 이 작품을 비롯한 삼부작을 쓸 당시를 회고하였다. 「역자후기」, 『가』, 2:319 면.

지원했으나, 결국 홍경애는 호적에도 올리지 못하는 조상훈의 아이와 함께 숨어 지내고 있기 때문이다. 조상훈이 홍경애에게 보였던 애초의 호의는 그의 선부른 감정으로 지워지고 말았다. 덕기는 홍경애와 그의 딸이자 자신의 누이인 아이를 생각하면서 필순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끊임없이 검열한다. 『삼대』에서 병화의 시선을 통해 봉건적 가치관에 젖어 있는 덕기를 비판한 것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에 반해 『가』에서는 주에후이의 시선을 통해 봉건적 가치관에 대한 사회적이며 공적인 지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공격적이고 열정적인 주에후이의 사상적 배경은 다음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량치차오梁啓超의 사상에 빠져 있었던 주에후이는 5.4 운동 이후 더 적극적인 사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그의 주위환경은 달라졌다. 책과 선생들의 강의에서 그는 점점 애국주의적 열정과 근대주의적 사상을 배양하게 되었다. 그는 량치차오梁啓超의 선동적인 문장의 애독자가 되었다. (중략) 그러나 5.4 운동은 갑자기 그에게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량치차오의 주장이 철저하게 분쇄된 후에도 그는 대단한 열성으로 새로운, 더욱 진보적인 학설을 받아들였다. (1:158 면)

주에후이는 형들과 함께 <신청년>, <신사조> 등의 잡지를 구독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스스로 고취시키던 중에 우연한 계기로 독군督軍에게 항의하는 학생 시위단에 참석을 하게 된다. 그리고 독군의 우유부단한 태도와 자신의 외부 활동을 저지하는 할아버지에게 반감을 갖기 시작한다. 그는 “어느날엔가 자기의 두 손이 크게 자라나 낡은 제도를 이렇게 부숴버리”(1:118 면)기를 결심하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간다.

전쟁이 끝난 이후, 주에후이는 학생들과 함께 “신문화 운동 소식을 게재하고 새로운 사상을 소개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낡은 사상을 공격하는 <여명주보黎明週報>라는 잡지”(2:38 면) 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진보적 성향의 글을 <여명주보>에 투고하면서 주에후이는 베이징北京이나 상하이上海에 있는 다른 진보적 청년들과 교류를 한다. 이러한 그의 활동은 『가』의 마지막 장면 즉, 주에후이가 집을 떠나려고 결심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원동력이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주에후이의 활동이 대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 한다면, 주에민의 행동은 비교적 온건하지만 가정 내의 가부장적 질서에 직접적으로 대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에민은 사촌인 친琴과 결혼하기를 희망했지만, 할아

버지는 자신이 정한 혼처와 결혼할 것을 명하였다. 주에민은 자신이 형인 주에신의 삶을 반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큰 결단을 내리고 집을 나간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강압적인 혼사를 치를 수 없어 집을 떠납니다. 집에는 나의 앞날과 운명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연히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구세대의 세력과 끝까지 싸워보겠습니다. 이번 결혼문제를 취소시키지 않는다면 죽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아직도 이번 혼담을 취소할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형님이 우리 형제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173 면)

주에민의 단호한 태도는 주에신을 비롯한 가족 전체에게 충격을 주었다. 실현 불가능했던 그의 요구는 할아버지 가오 나리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극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것은 1 세대의 죽음이 다음 세대의 수용으로 연결되는 장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대간의 수용과 이해 그리고 세대 교차는 너무도 힘든 과정을 거쳐 도달한 것이었다.

권위적인 할아버지의 완고한 주장으로 주에후이가 사랑했던 하녀 밍핑이 죽었다. 주에신은 할아버지가 정한 혼처와 결혼하였고, 결국 그 결혼은 사랑했던 여인 메이의 비극적인 죽음의 원인이 되었다. 비극은 끝이 아니었다. 할아버지의 죽음 뒤에 가족들은 말도 안되는 미신과 풍습을 들먹이며 만삭인 주에신의 아내를 성 밖 강 건너로 내쫓는다. 주에신은 그 미신 때문에 난산(難産)으로 괴로워하는 아내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지도 못한다. 가오 나리 집안에서 일어난 여성들의 희생은 주에신 형제를 격동시킨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집안 사람들이 오래 그랬던 것처럼 봉건적 질서에 순응하며 살고자 했던 주에신과 진보적 사고를 갖고 있지만 온건했던 주에민은 일련의 죽음을 겪으면서 점차 봉건적 질서에 대항해야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지게 된다. 그리고 그 선봉에 주에후이가 있었다. 형들의 지지 속에 주에후이는 고루(固陋)한 집을 떠나게 된 것이다. 주에후이의 출가出家로 끝나는 『가』의 결말은 매우 상징적이다.

그는 차츰 기쁨인지 슬픔인지 모를 새로운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그 자신이 집을 떠났다는 것만은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앞에는 끝없는 푸른 물결이 구비구비 흐르고 있었다. 그 물결은 쉬지 않고 흘러 그를 미지의 대도시로 실어다줄 것이다. 거기에서는 모든 새로운 것들이 자라나고 있을 것이다.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대중이 있을 것이며, 편지 왕

래만 했을 뿐 아직 만나본 적 없는 정열적인 젊은 벗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2:316 면)

다음 연작으로 이어지는 이 결말은 가오 나리 일가에 일대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암시한다. 세대 교체와 세대간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봉건적 가치관에 대한 비판과 지적 그리고 근대적 가치관으로의 전환 요청이 서서히 진행되며 3 세대에 의해 적극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이뤄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가』에서는 주에후이의 출가라는 상징적인 장면을 통해 세대 교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징은 『삼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다. 사상이 시대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작가의 신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식민지 조선이라는 제한적 상황을 배경으로 했던 한국과 달리 근대화라는 무한한 가능성을 담지했던 시기적 배경이 작품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오 일가에서 이와 같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것과 달리, 『삼대』에서는 가정 내의 변화보다 식민지 현실에서 일제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는 상황이 더 두드러진다. 병화와 홍경애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종의 활동은 작품의 전면에 드러나지 않으면서 은밀하게 진행된다. 식료품상점 산해진山海珍은 병화와 필순네 식구 그리고 홍경애가 관여하는 곳이다. 상점을 얻는 과정에서 오고 간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게 처리되면서 소위 운동 자금이 개인의 영리를 위해 쓰인 것처럼 오인될 소지도 있었다. 그러나 상점 운영을 통해 병화가 얻고자 한 것은 자립적인 경제 능력이었다. 이러한 병화의 문제의식은 근대화 과정이 식민지 치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여기서 작가의 두드러진 안목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내가 그걸 시작한 것이 나도 유자생녀하고 배 문질러 가며 거드럭거리고 살자고 하는 거면 모르겠네마는 저것은 장래에 내 사유물이 아니라 동지의 쌀자루 밥통으로 만들자는 것일세. 무슨 일을 허거나 먹기는 해야 하고 자금이 다소 있어야 하지 않나. 우선 필순이네 세 식구를 굶기지 않고, 나도 일시적 호신책으로 시작하였지마는 차차 커질수록 우리들의 공동기관을 만들 작정이란 말일세. 누구나 들어와서 교대해 가며 일은 할 수 있지마는 먹는 것 외에 이익을 배당하려든지 한푼이라도 축을 내서는 안될 일-나부터도 그 멤버어의 한 사람일 다름일세 (359 면, 밑줄 및 강조는 인용자)

병화의 의중은 작품의 말미에 드러난다. 독립 운동 내지는 사회주의 운동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상점을 차렸다는 사실

은 당시 사회의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작품의 전반부에서 줄곧 덕기에게 자금 조달을 받아 생활을 했던 병화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자생적 경제력을 갖추야 한다는 병화의 생각은 당시의 기준으로 꽤 파격적인 것이었다. 중국의 근대화 과정을 배경으로 한 『가』와 달리 『삼대』는 봉건적 질서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식민지 지배에 대한 항일 정신도 일정 부분 담겨 있다. 식민지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 경제적 자립이라는 병화의 발언은 당대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작가의 첨예한 시선이다.

한편, 『삼대』의 지하 운동은 일제 식민지하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당시 식민지 사회는 KAPF 활동의 억압과 검거로 인해 직접적이거나 적극적인 활동이 어려운 시기였다. 작가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많은 사회주의 운동이 음성화되었고 운동가들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런 현실이 작품에 그대로 녹아 들면서 작가 특유의 관찰자적 시선으로 처리된 것이다. 이러한 『삼대』의 소극적인 저항 운동이 식민지 조선이라는 한국 소설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가』의 3세대가 보여주는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가』에서의 사회운동이 적극성을 보이면서도 『삼대』와 흡사한 인물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바진의 창작 경향 때문이다.¹³ 이론이나 이념보다 작가의 경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작가의 노력이 식민지 시대를 모파한 염상섭의 그것과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봉건적 질서에 대한 저항과 근대화의 적극적인 수용은 당대 사회에서 그리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자신의 위치를 견고하게 지키려는 전근대적 가치관과 그에 맞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근대화는 세대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조선은 식민지하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인 활동이 여러모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변화를 도모하려는 젊은 세대들의 들끓는 욕망과 변화에 맞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봉건적 가치관을 놓치지 않으려는 늙은 세대들의 부

¹³ 박난영은 바진 연구에서 이 작품의 창작 의도가 갖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분석해내고 있다. “이 작품은 개념으로부터 출발한 창작 의도를 배제했을 뿐 아니라 작가의 생활 경험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아나키즘 이론에 의한 창작에서 벗어나 실제 생활을 묘사하게 되었으며 (중략) 작가의 유년 시절의 생활의 경험과 응축된 감정이 심미적 여과를 거쳐 창작의 경계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박난영, 『혁명과 문학의 경계에 선 아나키스트: 바진巴金』, 한울아카데미, 2005, 235면.

덧힘이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면, 젊은 세대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욕망이 얼마만큼 표현이 될 수 있는지 그 정도의 차이가 두 작품의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염상섭의 『삼대』와 바진의 『가』에 대한 비교를 통해 신·구 세대간의 대립과 갈등을 살펴보았다. 두 작품의 공통점은 권위적인 1 세대와 타락과 향락에 빠진 2 세대 그리고 구세대에 반발하는 3 세대로 정리할 수 있다. 1 세대인 조 의관과 가오 나리는 봉건적 체제 내에서 부를 이룩하였고, 그 부를 근간으로 가족들을 다스리려고 하였다. 2 세대인 조상훈과 커밍, 커안, 커딩 형제들은 근대화 초기의 신식 교육을 받았음에도 아버지의 권위에 굴복하고, 향락에만 전념한다. 그들에게는 새시대의 사상이나 개혁은 관심 밖의 일이며 그저 아버지의 부를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데에만 몰입한다. 물론 그들이 처음부터 무기력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들도 젊은 시절에는 세계의 변혁을 꿈꾸며 크고 작은 사회운동에 참여를 했지만, 그들이 맞서야 할 봉건적 질서는 견고하였고 근대화의 선봉에서 많은 이들을 계몽하기에는 자신들의 역량이 부족하였다. 그들은 시대의 한계에 부딪혀 결국 현실에 안주하게 된다. 이들은 가족 몰래 제 2, 제 3의 첩을 거느리거나 빗을 내어 마작에만 전념한다. 그래서 1 세대인 아버지와 다르게 가정 내에서 어떠한 권위도 갖고 있지 못하다.

3 세대인 조덕기와 류에신, 류에민, 류에후이 형제는 1 세대의 명을 일정 부분은 따르지만(조덕기와 류에신) 봉건적 질서의 갑갑함에 진저리를 치고(류에후이) 회의를 느낀다. 3 세대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미미하지만 시대의 변혁에 앞장서고 변화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2 세대에 비해 더 강하며 두드러지고 있다는 부분이다. 이러한 현상은 『가』에서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는 식민치하라는 제한된 상황이 없는 중국이라는 시대적·사회적 배경이 더 직접적인 언술로 봉건적 가치관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대』의 경우에는 조 의관과 조상훈의 대립과 갈등이 두드러진다. 이는 조선의 특수한 상황에서 기인된 것으로 3.1 운동 이전의 의욕 충만했던 운동가들을 대표하는 조상훈이 3.1 운동의 실패와 좌절에 따라 타락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조상훈으로 대표되는 3.1 운동에 좌절된 세대와 그들을 보고 타산지석他山之石 삼으며 또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조덕기-김병화 세대를 통해 『삼대』에서는 좌절을 극복해내려는 2

세대의 의지를 보여준다.

한편, 『가』에서는 가오 나리에 대한 주에민, 주에후이 형제의 반항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차이는 두 나라의 특수성 즉, 식민지 근대화와 5.4 신문화운동이라는 근대화 과정의 다른 양상이 작품에 영향을 끼친 탓이다. 그러나 『삼대』에서 3세대인 조덕기가 가업을 잇고 『가』에서도 주에신이 아버지 대신 가업을 잇는 것은 근대화 즉, 자본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당대 사회의 중요한 특징을 반영한 공통점으로 볼 수 있다. 무능한 2세대와 가업을 잇는 3세대들의 부분적인 순종은 현실적으로 금전적인 혜택을 저버릴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대화된 사회에서 영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력이다. 자체적인 경제력이 없는 2세대는 1세대가 이룩한 부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봉건적 가치관의 억압과 부당함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3세대의 경우에는 2세대보다 경제적 속박에서 좀 더 자유로운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에서 집을 떠나는 주에후이는 주에신의 금전적 원조를 받는 것으로 나오지만, 『삼대』에서 사회운동을 비밀리에 진행하던 병화의 목표는 상점 산해진을 통한 독자적 생존이었다. 이러한 두 작품의 차이는 바진의 작품이 3부작으로 이어지며 호흡이 더 길다는 점과 염상섭의 작품이 일제 식민지하에서 검열의 눈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두 작품은 모두 당대 사회의 여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삼대』에서는 홍경애와 필순이 주요 여성 인물이다. 독립투사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겨진 딸 홍경애와 그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필순을 통해 여성들에게도 경제적 자립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더불어 당대 여성들의 불안한 입지를 보여주었다. 『가』에서는 주요 남성 인물들에 비해 매우 수동적으로 형상화된 여성 인물들을 보여주면서 봉건적 가치관에 의해 희생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이 작품의 특징은 여성들의 처절한 희생이 남성들에게 큰 반항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두 작품 모두 당대 사회의 대표적 여성들을 형상화함으로써 봉건적 가치관과 근대적 질서의 혼란 속에서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 작품들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관심은 각 작가들의 후속 작품에서도 줄곧 이어진다.

바진의 『가』는 『봄』과 『가을』로 이어지면서 3세대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이후의 중국 근대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삼대』는 ‘마르크스 보이’인 병화에게 심정적·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덕기의 존재가 문제적이다. 동정자(sympathizer)라고도 불리는 덕기의 존재는 식민지 사회에서 눈여겨 볼 만한 존재이다. 직접적인 저항 운동에는 관여를 하지 못하지만, 조부가 물려준 재산을 근간으로 물심양면으로 저항 운동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존재로 인해 사회주의 운동이 지속될 수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동정자들은 식민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들이었다. 염상섭이 자신의 작품에 동정자를 적극 활용한 것은 작가 자신의 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KAPF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만, 사회운동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던 작가의 특징이다.

1930년대 초반은 중국과 한국 모두 근대화로 격변의 시간을 보내던 시기였다.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한 두 작품 『삼대』와 『가』는 봉건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의 대립과 갈등을 드러냄으로써 두 나라에 있었던 가치관의 변동 즉, 봉건적 가치관에 대한 환멸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유교적 질서라는 공통 분모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근대적 가치관을 적극 수용하여 사회 활동에 참여하려는 양상의 차이는 두 나라의 정치적 상황의 차이가 작품에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참고문헌

- 김 성(2014), 「염상섭의 『삼대』와 빠진의 『家』 비교연구」, 단국대 석사논문.
- 김성옥(2003), 「사회축도로서의 봉건대가정과 신세대의 삶의 대응양상-廉想涉의<三代>와 바金の<家>의 比較-」, 『한중인문학연구』 Vol.10.
- 김윤식(1987), 『염상섭 연구』, 서울:서울대 출판부.
- 바 진(2006), 『가』 1,2, 박난영 역, 서울:황소자리.
- 박난영(2005), 『혁명과 문학의 경계에 선 아나키스트 바진』, 광주:한울아카데미.
- 박난영(2006), 『동양의 고전을 읽는다: 문학』, 강태권 편, 서울:휴머니스트.
- 선우금(2003), 「巴金の 《激流三部曲》과廉想涉의 《三代》의 比較研究 - 女性の婚姻과教育問題를中心으로」, 숙명여대 석사논문.
- 선보량 Shan Baoliang(2012), 「『삼대』와 『가』에 나타난 세대갈등」, 아주대 석사논문.
- 수해국(2008), 「염상섭 『삼대』와 바金 『家』의 대비연구」, 충남대 석사논문.
- 염상섭(1987), 『염상섭 전집 4:삼대』, 서울:민음사.
- 장어현(2014), 「한중 가족소설에 대한 비교 연구 -염상섭의 『삼대』, 빠진의 『가』를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논문.
- 장예소(2013), 「염상섭의 『삼대』와 파금의 『가』의 비교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 조동일(2001), 「동아시아 소설이 보여준 가부장(家父長)의 종말」, 『국제·지역연구』 10 권 2 호.
- 호 미(2009), 「염상섭과 빠진의 가족사소설 비교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